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정논의물로 강씨를 뿌리며 평지나 가는 들수난의 세월
 2. 사랑이라 햇빛앞에 하나님 주신 생명보듬는다

회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 의 약속 굳게 믿으며 일곱
 우 우 우 우 우

아 녘 어져 도 약속을 굳게 믿으며

갈보리산 위에

G. Bernard

한국원승기공회 역

1. 갈보리 산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
 2.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
 3. 향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맘으로 버려
 4. 주가 예 비하시던 내의 본 향경에 나를 부르실 그 날까지

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 세
 거한 어 깁양이 영광 다 버리고 힘한 십자가 지냈도 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 하시려 주가 흘린 보혈일 세
 힘한 십자가를 항상 달 거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 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 주의 십자가 사랑하 리 -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 힘한 십자가 붙들것 네 -

시편 13, 14편

<p>13 편</p> <p>1 주여! 언제까지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p> <p>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p> <p>3 주, 나의 하느님,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 죽음의 잠,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p> <p>4 원수들이 이겼다고 뽐을 내며, ○ 적들은 기뻐하며 날뿔 것입니다.</p> <p>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 이 몸 건져 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p> <p>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 주님께 찬미드리리이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 썩은 일,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p> <p>2 주여,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있는지 ○ 하느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두루 살피지만</p> <p>3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p> <p>4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 떡 먹듯 내 백성 집어 삼키며, 주님은 부르지도 않는구나.</p> <p>5 하느님께서 옳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니 ○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p> <p>6 비천한 이들 생각을, 너희가 비웃지만 ○ 주께서 그들을 감싸 주신다.</p> <p>7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리니: 잡혀 간 당신 백성을 주께서 데려 오실 때, ○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리라.</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14 편</p> <p>1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이르기를 ○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말들 하면서.</p>	

복음서: 요한복음 13:1-20

<p>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p> <p>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p>	<p>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p> <p>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